

세계 의약품시장 일대파란 예고

특허종료와 경쟁치열 따라 ... 「로섹」 위장약 톱베스트셀러 예상

최근 리만 브러더스증권회사가 발표한 보고서 파머 파이프라인(Pharma Pipeline)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의약품 베스트셀러에 일대 파란이 일어 80년대 중반이후 전세계 판매수위를 지켜온 잔탁(Zantac) 위장약은 점차 판매량이 감소되어 신규 의약품에 판매수위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글락소사의 잔탁은 특허종료와 경쟁치열에 따른 가격인하 및 판매둔화로 94년 37억달러에서 2000년 7억달러로 감소되는 반면 스웨덴 아스트라의 로섹(Losec) 위장약은 94년 22억달러에서 2000년 40억달러로 증가하여 톱베스트 셀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Eli Lilly의 프로잭(Prozac) 항우울제 판매액은 94년중 17억달러로 7대베스트셀러였으나 2000년에는 30억달러로 5대 베스트셀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생물공학회사인 Amegen이 개발한 에리스로포틴(Erythropoetin : Epo)도 여타 제약회사에 제조특허를 공여함에 따라 판매순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Epo는 적혈구 생산촉진제로 신장병, 암, 외과 수술 및 에이즈등 질환의 빈혈치료제로 투약되고 있는데 판매액은 94년 21억달러에서 2000년 35억달러로 증가, 판매순위가 4위에서 2위로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잔탁 외에 일부 의약품은 신규개발 의약품과의 경쟁과 특허종료로 인해 2000년에는 판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Hoechst의 카디젼(Cardizem) 혈압약은 94년 16억달러에서 2000년 10억달러로 판매액이 감소되어 판매순위가 9위에서 25위로 떨어지며 미국 Bristol Myers Squibb의 카포텐(Capoten) 혈압약도 94년 15억달러에서 2000년 7억5000만달러로 판매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스위스 Ciba의 관절염치료에 이용되는 볼타렌(Votaren) 소염진통제도 판매액이 12억달러에서 7억5000만달러로 감소되어 판매순위가 16위에서 46위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향후 의약품업계간 합병·인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출시되는 의약품 가격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보충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저널 1996/2/12>

